

# 국토교통부 친환경 건축자재 예방점검

국토교통부 보도자료 (2021. 06. 14.)



국토교통부에서는 친환경 건축자재 예방점검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발표하였다.

-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건축자재의 제조·유통단계부터 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“21년 친환경 건축자재 제조·유통 관리 점검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- (지난) ‘18년도부터 매년 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의 제조·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
- 지난해에는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거나 품질성능을 확보하지 못해 적발된 **부적합 건축자재\***에 대해서 **전량 폐기**
- \* 붙박이(수납)가구, 주방가구, PL창호, 목제창호, 레미콘 5종(23개 제품)에 대한 점검결과, 주방가구, PL창호 등 3종(6개 제품) 부적합 판정
- 이미 시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**재시공 등 총 23건 중 6건(약 26%)의 시정조치를 완료**
- 붙박이가구, 주방가구 등의 주요 원자재 및 부자재, 바닥마감재 등 주거환경에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해 친환경 성능 기준\* 준수 여부를 점검
- \* 실내환경 오염물질인 **총휘발성유기화합물(TVOC), 폼알데하이드(HCHO)** 등
- 점검대상 친환경 건축자재를 제조·납품하는 업체를 불시 방문하여 자재별 시료를 채취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
- 점검현장에서 업계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, **자율적 품질 관리 향상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**
- 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협하고, 재시공에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이 높아 **예방적 관리가 중요**
- 국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건전한 친환경 건축자재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현장문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

